



리서치센터 투자전략팀

| 시황/ESG Analyst 이성훈 shl076@kiwoom.com



키움증권

미 증시, 미중 정상회담에도 빅테크 AI 투자 부담 우려에 하락

증시 코멘트 및 대응 전략

30일(목) 미 증시는 미중 정상회담 속 양국 간 일부 쟁점에서의 무역 합의 소식에도 근본적인 무역 갈등은 잔존한다는 인식 속 메타(-11.3%) 등 빅테크의 AI 인프라 투자에 대한 우려 재차 불거진 영향으로 기술주를 중심으로 하락한 결과 3대 지수는 하락 마감 (다우 -0.23%, S&P500 -0.99%, 나스닥 -1.58%)

전일 미중 정상회담을 통해 양국 정상은 약 1시간 40분가량 무역협상이 진행. 구체적으로, 미국 → 중국(펜타닐 관세 20% → 10%, 중국 선박에 대한 입항수수료 부과 조치 유예), 중국 → 미국(희토류 수출 통제 1년 간 유예, 펜타닐 유입 차단에 협력, 미국의 대두 등 농산물 즉시 구매 등) 등 주로 무역과 경제 이슈 논의에 집중. 즉, 금번 미중 정상회담 속 양국 간 전술적 휴전을 통해 무역 갈등이 일시적으로 봉합되었다는 점은 안도 요인. 다만, 100% 초고율 관세 유예 기간(11월 중순 만료) 재연장 문제, 엔비디아의 블랙웰 중국 공급 문제 등의 핵심 논의가 빠졌다는 점에서 근본적인 무역 갈등 이슈는 아직까지 잔존하는 상태.

한편, 엔비디아를 제외한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가 마무리된 가운데 AI 수익화에 따른 기업별 주가 차별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양상. 특히, 메타는 호실적에도 불구하고 막대한 AI 투자 부담(AI 투자비용 충당을 위해 250억 달러 규모의 회사채 발행), 클라우드 등 직접적 AI 수익 모델 부재 등이 부각되며 주가는 11%대 급락세 연출. 반면에, 알파벳은 AI 붐 속 클라우드 수주 잔고 급등(1,550억 달러, QoQ 46%) 등 AI 수익화를 증명하였고, 막대한 현금흐름을 통해 투자 비용을 커버할 수 있다는 인식 속 주가는 2.5%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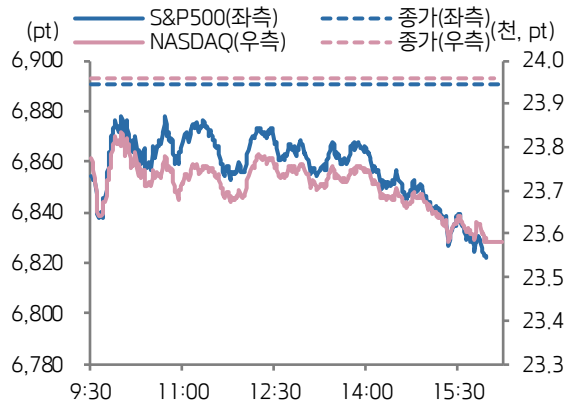
아마존 또한 AI 수요 증가 속 AWS 부문 실적 호조(330억 달러 분기 매출, YoY 20.2% 증가 vs 컨센 18.1%)에 힘입어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발표하며, 현재 시간 외에서 +13.3% 상승. 최근 AI 버블론이 수시로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금번 주요 빅테크 기업의 실적 발표에서 막대한 AI Capex 사이클을 재확인. 결국, 향후 AI 기반 수익화에 따른 기업별 주가 차별화 흐름은 확대될 것으로 판단.

전일 국내 증시는 장 초반 한미 관세 협상 타결, 삼성전자 호실적 발표에 힘입어 사상 최고치 재차 경신했으나 주요 이벤트 소화 이후 재료 소멸 인식 속 코스피는 장 후반부 상승폭 반납. 코스닥 또한 최근 급등세를 보였던 2차전지 업종 중심의 차익실현 매물 출회되며 하락 마감(코스피 +0.14%, 코스닥 -1.19%)

금일 국내 증시는 최근 급등에 따른 과열 부담 인식 속 전일 미 증시에서의 빅테크 조정, 필라델피아 반도체(-1.53%) 하락을 반영하며 하락 출발할 것으로 전망. 판단, 증시 대기성 자금인 예탁금 85조 원 돌파 등 풍부한 유동성 여건 속 저가 매수 유인 상존함을 감안시 장 후반으로 갈수록 낙폭 회복하는 흐름 진행될 전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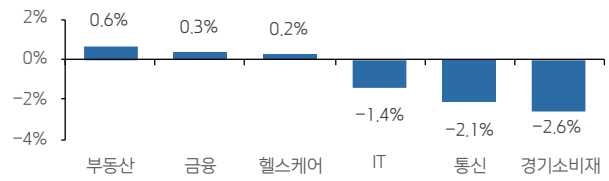
한편, 전일 한국에서 엔비디아 젠슨황 CEO와 삼성전자, 현대차그룹 회장 간 회동 속 한미 기술 협력 모멘텀이 국내 증시에 훈풍으로 작용할 가능성. 현재 엔비디아는 한국을 주요 AI 허브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국내 주요 기업과의 HBM, 자율주행, 로봇틱스 분야의 협력 확대가 가시화되는 지에 주목해볼 필요.

S&P500 & NA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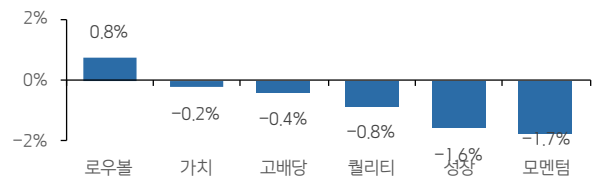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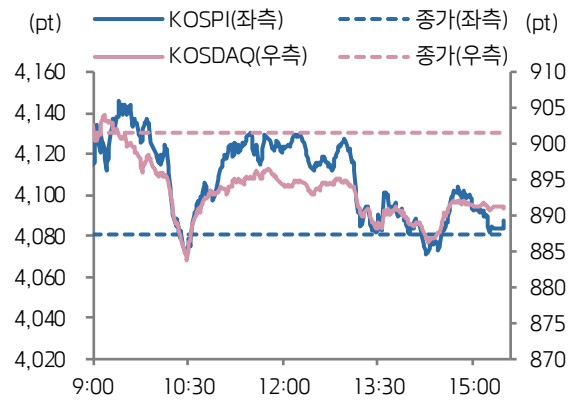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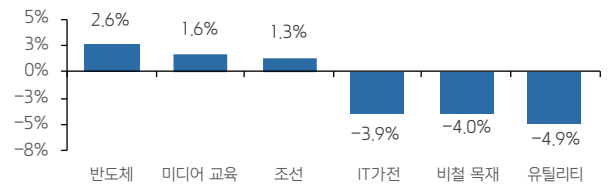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KOSPI & KOSDAQ 일중 차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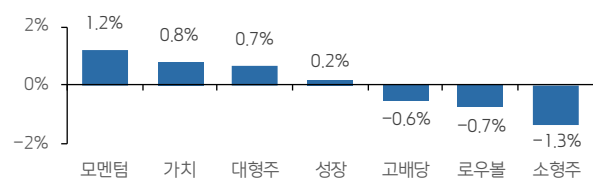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업종별 주가 등락률 상하위 3



스타일별 주가 등락률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주요 종목

종목	종가	DTD(%)	YTD(%)	종목	종가	DTD(%)	YTD(%)
애플	271.40	+0.63%	+8.76%	GM	68.67	-0.67%	+29.98%
마이크로소프트	525.76	-2.92%	+25.42%	일라이릴리	844.50	+3.81%	+10.05%
알파벳	281.48	+2.52%	+49.18%	월마트	102.23	-0.22%	+14%
메타	666.47	-11.33%	+14.09%	JP모건	309.44	+1.29%	+31.82%
아마존	222.86	-3.23%	+1.58%	엑손모빌	114.69	-1.51%	+9.57%
테슬라	440.10	-4.64%	+8.98%	세브론	153.52	-1.02%	+9.68%
엔비디아	202.89	-2%	+51.12%	제너럴일렉트릭	102.23	-0.2%	+14%
브로드컴	376.47	-2.46%	+63.54%	캐터필러	583.15	-0.4%	+63.18%
AMD	254.84	-3.59%	+110.98%	보잉	200.08	-6.32%	+13.04%
마이크론	224.01	-1.16%	+166.94%	넥스트에라	81.64	-0.1%	+16.6%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주요 지수

주식시장				외환시장			
지수	가격	DTD(%)	YTD(%)	지수	가격	DTD(%)	YTD(%)
코스피	4,086.89	+0.14%	+70.32%	USD/KRW	1,435.00	+0.99%	-2.53%
코스피200	575.21	+0.65%	+80.99%	달러 지수	99.53	+0.31%	-8.26%
코스닥	890.86	-1.19%	+31.36%	EUR/USD	1.16	-0.31%	+11.7%
코스닥150	1,530.57	-0.97%	+35.47%	USD/CNH	7.11	+0.19%	-3.1%
S&P500	6,822.34	-0.99%	+15.99%	USD/JPY	154.13	+0.92%	-1.95%
NASDAQ	23,581.14	-1.57%	+22.11%	채권시장			
다우	47,522.12	-0.23%	+11.7%	가격	DTD(bp)	YTD(bp)	
VIX	16.91	-0.06%	-2.54%	국고채 3년	2.737	+6.2bp	+14.2bp
러셀2000	2,465.95	-0.76%	+10.57%	국고채 10년	3.055	+7.5bp	+18.4bp
필라. 반도체	7,216.00	-1.53%	+44.9%	미국 국채 2년	3.608	+1bp	-63.3bp
다우 운송	15,729.54	+0.91%	-1.05%	미국 국채 10년	4.097	+2.1bp	-47.2bp
상해종합	3,986.90	-0.73%	+18.95%	미국 국채 30년	4.654	+2.9bp	-12.7bp
항생 H	9,346.86	-0.31%	+28.22%	독일 국채 10년	2.643	+2.2bp	+27.6bp
인도 SENSEX	84,404.46	-0.7%	+8.02%	원자재 시장			
유럽, ETFs				가격	DTD(%)	YTD(%)	
Eurostoxx50	5,699.18	-0.12%	+16.41%	WTI	60.57	+0.15%	-11.17%
MSCI 전세계 지수	1,014.42	+0.08%	+20.57%	브렌트유	65.00	+0.12%	-12.92%
MSCI DM 지수	4,424.84	-0.03%	+19.34%	금	4,015.90	+0.38%	+45.14%
MSCI EM 지수	1,416.39	+0.98%	+31.7%	은	48.62	+1.47%	+66.25%
MSCI 한국 ETF	95.26	-1.69%	+87.19%	구리	510.40	-3.03%	+26.76%
디지털화폐				BDI	1,961.00	+0.56%	+96.69%
비트코인	107,508.75	-3.54%	+14.72%	옥수수	430.25	-0.86%	-3.04%
이더리움	3,756.89	-4.94%	+12.26%	밀	524.25	-1.5%	-12.41%
				대두	1,107.75	+1.21%	+7.16%
				커피	392.00	+0.33%	+35.48%

자료: Bloomberg, 키움증권, 한국 오전 6시 30분 기준

Compliance Notice

- 당사는 10월 30일 현재 상기에 언급된 종목들의 발행주식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동 자료의 금융투자분석사는 자료 작성일 현재 동 자료상에 언급된 기업들의 금융투자상품 및 권리를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 당사는 동 자료를 기관투자자 또는 제 3자에게 사전 제공한 사실이 없습니다.
- 동 자료에 게시된 내용들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없이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고지사항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의 리서치센터가 신뢰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로부터 얻은 것이나, 당사가 그 정확성이나 완전성을 보장할 수 없고, 통지 없이 의견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유가증권 투자를 위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당사 고객에게 배포되는 참고자료로서, 유가증권의 종류, 종목, 매매의 구분과 방법 등에 관한 의사결정은 전적으로 투자자 자신의 판단과 책임하에 이루어져야 하며, 당사는 본 자료의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일체의 투자행위 결과에 대하여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으며 법적 분쟁에서 증거로 사용 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 분석자료를 무단으로 인용, 복제, 전시, 배포, 전송, 편집, 번역, 출판하는 등의 방법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는 경우에는 관련법에 의하여 민·형사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